



고려대의료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파이브 캠퍼스’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연구와 산업, 교육의 전진기지이자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인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의 조감도. 사진제공 | 고려대의료원

정릉에 감염병 연구기지 ‘메디사이언스파크’ 온다

바이오메디컬·신약개발 플랫폼 육성
2019년 착공...올 10월 개원 앞둔
백신 개발 위한 최첨단 시설 마련
의료 빅데이터 활용하는 역량 키워
안암·구로·안산 등과 시너지 기대



‘파이브 캠퍼스’ 플랜에 따라 스마트인텔리전트 병원으로 거듭나는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산업은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환경부터 진료분야, 관련 산업과의 적극적인 융복합 등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병원들은 준비를 위해 분주하다.

그중 고려대의료원은 ‘파이브 캠퍼스’(5 CAMPUS) 플랜을 통해 코로나 이후 글로벌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파이브 캠퍼스’는 기존 안암·구로·안산 병원을 진료공간을 넘어 연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캠퍼스로 개편하고, 2019년 착공한 메디사이언스파크와 고영캠퍼스를 더해 5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이루는 프로젝트다. 이중 10월 개원을 앞둔 서울 정릉의 메디사이언스파크(정릉 캠퍼스)는 미래 초일류 의료기관 도약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첨단 연구 전진기지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2만4000여㎡의 부지는 과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있던 자리다.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다소 개발이 더딘 이곳에 한국 의료과학의 미래를 대표하는 핵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

고려대의료원은 메디사이언스파크를 한국 바이오메디컬 연구와 산업, 교육의 전진기지이자 신약 개발의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프로젝트 아래 첨단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메디사이언스파크를 대표하는 시설은 ‘백신 이노베이션 센터’(VIC-K)다.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와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전 임상에 걸친 연구 플랫폼 등을 구축해 인류를 감염병 위기에서 구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백신 이노베이션센터에는 이를 위해 A BSL3(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BSL3(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첨단기술융합학과와 대학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데이터 산업체 등이 입주하는 ‘코리아 R&D 콤플렉스’도 메디사이언스파크의 중요 시설이다. 고려대의료원은 특수 분야 국제 보건교육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이 협력하는 ‘산·학·연·병’ 체제를 구축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도 유지해 협업할 예정이다.

‘의료정보학교실’은 최근 갈수록 중

요성이 커지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시설이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의료정보학교실은 의료정보를 관리, 가공해 원격의료, 가상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

메디사이언스파크가 시설 내에 이차림 바이오메디컬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고려대의료원이 그동안 바이러스 및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려대의료원은 1976년 신종후생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Hantann)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백신 한타바이러스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메르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때도 매년 고려대의료원의 의료진들은 실력을 입증했다.

또한 메디사이언스파크가 앞으로 주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빛어낼 시너지 효과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기대도 남다르다. 메디사이언스파크 주변에

는 고려대를 비롯해 9개 대학과 병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5개 연구기관이 모여 있다.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박사급 연구 인력만 5200여 명에 달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곳의 연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플랫폼인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했고, 지난해에는 홍릉강소연구특구로 지정했다. 메디사이언스파크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의 연구 개발을 이끌어갈 핵심기관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파이브 캠퍼스’ 플랜에 맞춰 안암, 구로, 안산병원 등 3개 병원도 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관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2023년까지 중증질환 중심의 환자 맞춤형 치료를 통해 스마트인텔리전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구로병원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환경을 구현하고 첨단의학 특성화센터를 구축한다. 안산병원은 서해권을 대표하는 중증질환 전문 치료병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메디사이언스파크가 완공되면 집행부를 포함한 의료원 헤드쿼터(본부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이라며 “연구 중심 임상테스트 베드인 안암·구로·안산병원 등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앞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영호 의무부총장은 이어 “메디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고려대의료원의 5개 캠퍼스가 협력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어간다면 2028년 고대 의대 100주년에는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9월 오픈 예정인 미래의학 헬스케어의 중심, 청담 고영캠퍼스의 조감도. 사진제공 | 고려대의료원

미래의학 인프라 구축 고영캠퍼스 9월 개원

임상연구지원본부 도입해 국내 임상실험 인정 가능
정밀의료 위한 시스템...홈헬스케어 연구기지 역할

청담 고영캠퍼스는 고려대의료원 ‘파이브 캠퍼스’ 플랜에서 메디사이언스파크와 함께 핵심을 이루는 곳이다. 서울 문화와 유행의 중심지인 강남 도산대로 지역에 9월 9일 개원 예정이다.

맞춤형 특화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헬스케어, 대학과 병원, 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 사회공헌사업단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미래의학의 한 분야인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들어선다. 그중에는 고려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3월부터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검사 데이터 원격판독도 있다.

고려대의료원이 2020년 세계 종합병원 가운데 최초로 의료기기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14155)을 획득하면서 기반을 갖춘 임상연구지원본부도 들어선다. 올해 5월부터 유럽시장 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기기법(MDR)에 따라 규격에 맞는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고려대의료원이 인증을 획득하면서 국내 임상시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영캠퍼스는 또한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홈헬스케어 분야 연구기지의 역할도 담당한다. 한국형 홈헬스케어 개발을 통한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인 돌봄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최대 가정 요양 서비스 기업의 한국 지사인 바이다홈헬스케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고영캠퍼스가 앞으로 펼칠 다양한 사업에서 주목할 분야는 의료원장 직속의 사회공헌사업단이다. 고려대의료원은 그동안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앞으로 고영캠퍼스의 사회공헌사업단을 통해 의료봉사, 국제보건사업, 통일보건의료사업, 국가재단대응 등 기존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사업단 산하 미래교육의학원(가칭)에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rhuk@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5일 (목) 음력: 6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장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가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전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함에도 화해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 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 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산에 산이 증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증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오늘의 날씨				15일(목)			
서울	20/20	인천	10/30	춘천	60/70		
	26 32		25 30		25 33		
강릉	20/0	대전	0/60	전주	0/20		
	25 31		25 33		25 33		
광주	20/20	대구	10/80	부산	0/0		
	25 33		25 33		25 31		
창원	0/0	제주	2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5 32		26 32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2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